

진안 ‘산림녹화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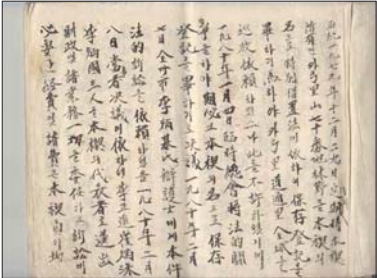
진안역사박물관 소장 중평마을 산림계 자료… 공문서·사진 등 총 9619건 등재 결정

진안군 성수면 도토리 중평마을의 산림계 자료가 포함된 ‘산림녹화기록물’이 지난 10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집행 이사회에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UNESCO Memory of the World)으로 등재 결정됐다. 유네스코에서는 세계적으로 가치가 있는 기록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그 활용을 진흥하기 위해 인류가 보존할 만한 기록물을 대상으로 세계기록유산을 지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산림녹화기록물’은 6·25전쟁 후 황폐화된 국토에 민·관이 협력하여 성공적인 국가 재건을 이뤄낸 산림녹화 경험이 담긴 자료들로, 세계의 다른 개발도상국이 참고할 수 있는 모범 사례이자 기후변화 대응, 사막화 방지 등 국제적 논점에 본보기가 되는 기록물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세계기록유산에 등재 결정된 ‘산림녹화기록물’은 공문서·사진 등 총 9,619건이다. 이중 진안 중평마을에서 이웃 점촌마을과 함께



진안 중평마을 산림계 정관

공동산림을 보호하고 이용하기 위해 만든 마을공동체인 산림계(山林契)와 관련된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이들 자료는 산림계의 운영 규칙을 적은 정관(定款)과 그 운영내용을 상세히 기록한 수계기(修契記)로, 2006년 마을회의를 통해 진안의



진안 중평마을 산림계 수계기

역사문화를 종합하여 전시·연구하고 있는 진안역사박물관에 기증되어 보존·관리되고 있다. 특히 중평마을의 산림계 수계기에는 180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 산림계 조직의 운영내용이 담겨 있어 그 역사가 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수계기에는 마을 공동산림의 보호와 이용을 위해 조직된 공동체인 산림계에서 마을 주민들의 생활 유지에 필요한 연료용 땔감과 퇴비 재료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고, 산림의 보호를 위해 몰래 나무를 베는 등 계의 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벌금의 처벌을 내리는 기록 등이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민간차원에서의 산림보존 노력은 정부와 공공단체의 산림보존 노력 및 성과와 함께 우리나라 ‘산림녹화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지정 가치를 높임으로서 이번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춘성 군수는 “이번 중평마을 산림계 자료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로 지역문화유산의 우수성과 이를 연구·보존하고 있는 지역박물관의 역할이 다시 한 번 재조명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번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계기로 지역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 규명과 보존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한국공예 장인학교’ 본격 운영

전주문화재단, 무형유산 장인과 함께하는 1:1 도제식 교육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라기)이 전북의 무형유산 장인들과 함께 전통공예 기술을 전수하는 ‘2025 한국공예 장인학교’의 시작을 알렸다. 이번 교육은 도제식 실습 중심의 교육 방식을 통해 사라져 가는 전통기술을 보존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 목적을 뒀다. 한국공예 장인학교는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장인들이 직접 교육자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기초반과 심화반으로 구성된 2년제 학제 시스템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올해 운영되는 기초반은 △단선 △매듭 △목조각 △색지 △지승 등 5개 분야에서 교육생을 모집, 총 25명 정원에 33명이 지원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후 개별 면접을 통해 교육생을 최종 선발했으며, 이들은 주 3시간씩 1:1 도제식 교육을 통해 장인들의 숙련된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 받게 된다. 교육과정은 기초반 28주, 심화반 28주로 총 56주간 운영되며, 기초반을 성실히 이수한 교육생에게는 이후 심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한편 지난해 기초반 수업을 받은 교육생들 중 실력이 우수한 수료생들은 올해 심화반에 참여하게 된다. 각 분야별 교육으로 △단선은 방화선 선자장 △매듭은 김선자 매듭장 △목조각은 김중연



민속목조각장 △색지는 김혜미자 색지장 △지승은 김선에 지승장이 각각 맡아 진행할 예정이다. 최라기 대표이사는 “한국공예 장인학교의 배움을 통해 우리 지역 공예 문화를 선도할 수공예 전문 인력이 양성되길 기대한다”며 “전통기술이 계승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문화재단 한지산업팀(063-281-1552)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은성 기자

남원시, ‘제95회 춘향제’ 30일 개막

5월 6일까지 ‘춘향의 소리, 세상을 열다’ 주제 개최

대한민국 대표 전통문화축제인 ‘제95회 춘향제’가 오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7일간, 남원 광한루원과 요전 일원에서 개최된다. 올해 춘향제는 ‘춘향의 소리, 세상을 열다’를 주제로, 한국 전통 예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장르와 국적,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소리 중심’의 문화예술축제로 꾸며진다. △한국의 소리 △세계의 소리 △융합의 소리라는 3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구성된 이번 축제는 전통국악부터 글로벌 사운드, 그리고 디지털 테크놀로지와의 융합까지 폭넓은 스펙트럼의 무대가 남원을 수놓을 예정이며, 공연 관람을 넘어 누구나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100여 개가 넘는 무대와 체험 콘텐츠가 축제 기간 내내 곳곳에서 펼쳐진다. 축제의 시작은 전야제로 △글로벌 춘향선발대회가 장식하고, 5월 1일에는 춘향제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상징하는 △춘향제향과 공식 개막식이 열리며, 축제에서는 전통국악과 대중음악이 함께하는 △일장춘몽 콘서트가 매일 밤 펼쳐지고 △향토 음식 푸드코트(F&존)와 백종원 브랜드가 함께하는 먹자거리 △춘향전 속 장면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거리 퍼레이드 △대동길놀이



등으로 오감을 만족시킬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남원시는 이번 축제가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교통통제, 임시주차장 운영, 안전요원 배치 등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을 구축했다. 남원시는 이번 축제를 통해 춘향제의 문화유산 가치를 재조명하고, 향후 2030년 춘향제 100주년을 향한 장기 전략 구상과 함께 지역 문화관광산업의 도약을 이끌어갈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국제영화제, 전주씨네투어 ×음악 아티스트 · 상영작 공개

오는 30일 개막을 앞둔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공동집행위원장 민성욱·정준호)가 ‘전주씨네투어X음악’의 아티스트 및 상영작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전주씨네투어X음악은 아티스트가 직접 선정한 영화를 관람하고 토크를 곁들인 라이브 공연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예년보다 프로그램 규모를 대폭 확대해 총 15명의 아티스트가 선보이는 다채롭고 풍성한 무대를 만나볼 수 있다. 영화를 통해 아티스트의 심도 깊은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전주씨네투어X음악은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 기간 중인 5월 2~6일 총 5일간 전주시네마타운에서 진행된다. 첫 상영시간은 오전 11시며, 두 번째 영화는 15시, 세 번째 영화는 19시 30분에 상영된다. 공연은 상영종료 후 약 50분 간 진행될 예정이다. 전주씨네투어X음악 티켓은 4만원으로 오는 18일 매통 티켓 홈페이지에서 예매할 수 있다. 더불어, 전주를 방문한 관객들을 대상으로 전주씨네투어X음악의 한정판 굿즈를 선착순 증정하며, 이벤트를 통해 전주의 로컬 브랜드 ‘날과기’와 ‘홍시궁’의 음료 할인 쿠폰을 증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정보는 전주국제영화제 공식 홈페이지(<https://www.jonjfest.kr>)와 매통 티켓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은성 기자

전북예술회관 하반기 정기 대관 접수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전북예술회관의 2025년 하반기 정기 대관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북예술회관은 지역 예술가의 창작 활동을 장려하고,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38석 규모의 공연장과 6개의 전시실을 운영하고 있다. 전시실은 △기스락1(95평), △기스락2(42평), △차오름1(67평), △차오름2(41평), △미리내(66평), △산마루(23평) 등으로 구성돼 있다. 신청을 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재단 누리집(www.jbct.or.kr)에서 대관 신청서와 전시(공연) 계획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canjxhile@jbct.or.kr)로 제출하거나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전시실 대관 기간은 7월 4일부터 12월 25일까지며, 매주 금요일부터 다음 주 목요일까지 1주일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공연장 대관 기간은 11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일요일과 월요일은 정기 휴관일이다. 다만, 시설보수, 기획전시와 공연, 제15회 세계시에전북비엔날레가 예정된 기간에는 대관이 제한된다. 한편 선정 결과는 5월 16일 재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예술회관 운영팀(063-230-7490, 7493)에 문의하면 된다. /정은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형제중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렸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원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정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여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뿔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우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

전주매일 캠페인